

濟州農業의 流通課題

成 培 永*

1. 問題의 提起

- 天惠의인 自然條件에 따른 農業生產의 特殊性으로 유일한 流通組織의 형성
 - 亞熱帶作物의 生產이 可能하거나 容易 : 끌,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 平均氣溫이 零上을 유지하므로 特用作物의 早期栽培가 용이 : 양파, 당근, 양배추,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
- 國土의 南端에 位置한 섬으로서 流通與件의 特殊性
 - 海運이나 항공에 의한 수송으로 農產物의 流入이나 流出이 不利하여 流通費用이 過多
 - 섬으로서 大規模 二次產業의 發達이 저조하여 農業과의 關聯效果가 적고 農業關聯產業이 미발달 : 농기계, 농약, 비료, 기타 농자재
 - 地域農產物의 加工產業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 農外就業 기회가 적어 農業所得增大의 필요성이 강함
 - 육지의 流通情報 획득이 상대적으로 불리
- 제주는 天惠의 觀光地로서 特別需要의 創出과 觀光農業을 위한 유통설비가 필요하게 됨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최근의 國際化 추세에 따른 農產物 輸入自由화와 각종 서어비스 및 관광의 自由화가 제주농업생산과 流通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濟州農業現況과 特化農產物

가. 農業構造와 與件

- 경지율(1987) 28.5%(답 1.8%, 전98.2%)
- 경지 이용률(1988) 133%(전국 118%)
- 평균기온(1987) 15.4°C(-3.0~35.4°C)
- 평균강우량(1987) 1,953mm
- 70년대 이후 中·大農이 증가하는 大農單極化 현상이 뚜렷
- 농가인구가 급속도로 감소

〈表 1〉 濟州의 耕地 및 農家人口의 變化 1967~87

	1967	1977	1987
耕 地 面 積 (ha)	50,174	50,101	54,523
總 人 口(千名)	346.8	431.9	502.5
農 家 人 口(千名) (농가인구비중 : %)	269.5 (77.7)	243.8 (56.4)	177.3 (35.3)
農 家 戶 數 (戶)	58,457	54,270	42,608
農家戶當耕地面積 (ha)	0.86	0.92	1.28

資料：제주통계연보(각년판).

나. 農業의 比重

- 農林水產業의 비중이 42.4%((1986)로서 전국의 그것에 비해 높음
- 農林水產業의 就業者비중은 58%(1986)로서 전국의 23.6%보다 2.4배 높음
- 광·공업의 生產比重은 4.0%(1986)로서 제주지역 農村住民의 제조업부문 農外就業機會가 매우 제한적임

〈表 2〉 濟州農業의 經濟的 比重과 그 變化

	1981		1986		전 국 (比重) 1986
	實績比重		實績比重		
總附加價值生產額(경상)	억원	%	억원	%	%
農林水產額	4,625	100.0	9,537	100.0	100.0
(農業)	1,615	34.9	4,023	42.2	12.3
鑄・製造業	(1,485)	(31.5)	(3,370)	(35.3)	(10.0)
서비스업	244	5.3	380	4.0	32.2
	2,766	59.8	5,134	53.8	55.1
總就業者	천명		천명		
農林水產業	187.4	100.0	199.1	100.0	100.0
鑄・製造業	134.5	71.8	116.0	58.2	23.6
서비스업	5.9	3.1	6.1	3.1	25.9
	47.0	25.1	77.0	38.7	50.5
주민 1인당 GRP(경상)	993천 원		1,923천 원		2,027천 원

資料：濟州 主要行政總覽，各년도

다. 濟州地域의 特化生産物

- 1960년대의 濟州農業은 食糧作物生產의 반자급적 영농형태였음
- 1960년초에 도입된 油菜는 식용유의 국내수요 확대와 栽培技術의 용이 등으로 식부면적이 1967년에 전체 식부면적의 7.5%에서 1977년에는 17.6%로 급속히 확대됐다가 값싼 대두의 수입으로 급속히 감소했으나 지역의 소득유지와 관광자원 유지를 위해 정부가 수매함으로써 1987년에는 8% 수준에 머뭄.
- 고구마 재배는 60년대 이후 酒精과 전분원료 확보를 위해 政府의 가격 지지와 신품종 도입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설탕수입과 값싼 대체 酒精原料 輸入 확대로 生產이 크게 위축됨.
- 감귤은 農漁民所得增大 특별사업 지원품목으로 지정됨으로써 (1968) 그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擴大되어 總耕地面積의 약 32%로서 주민의 主所得源으로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 와서 價格不安과 亞熱帶作物의 施設栽

〈表 3〉 濟州地域의 作目別 植付面積의 變化와 全國과의 比較

	1967	1977	1987	對전국비중 *1987
식량작물(ha)	71,684 (88.3)	40,282 (48.8)	32,636 (46.2)	1.8(%)
미 곡	3,909 (4.8)	2,078 (2.5)	1,205 (1.7)	0.1
맥 류	31,443 (38.7)	14,427 (17.5)	11,124 (15.7)	5.3
두 류	12,013 (14.8)	10,273 (12.4)	12,270 (17.4)	5.7
서 류	12,350 (15.2)	11,036 (13.4)	5,309 (7.6)	11.2
잡 곡	11,969 (14.7)	2,468 (3.0)	2,728 (3.9)	5.9
채소류	1,707 (2.1)	2,879 (3.5)	7,475 (10.6)	3.9
〈배추〉	347 (0.4)	625 (0.8)	575 (0.8)	2.6
〈양배추〉	134 (0.2)	228 (0.3)	622 (0.9)	36.7
〈수박〉	59 (0.7)	96 (0.1)	509 (0.7)	4.5
〈파늘〉	277 (0.3)	360 (0.4)	2,526 (3.6)	8.1
〈양파〉	226 (0.3)	230 (0.3)	556 (0.8)	6.2
〈당근〉	— (—)	31 (—)	1,171 (1.7)	42.0
과실류	1,118 (1.4)	11,719 (14.2)	18,333 (25.9)	16.2
〈밀감〉	1,111 (1.4)	11,710 (14.2)	17,656 (25.0)	99.9
특용작물	6,672 (8.2)	27,722 (33.6)	12,262 (17.3)	6.1
〈참깨〉	357 (0.4)	5,888 (7.1)	6,095 (8.6)	6.0
〈유채〉	6,094 (7.5)	14,512 (17.6)	5,645 (8.0)	97.5
합계	81,181(100.0)	82,602(100.0)	70,706(100.0)	2.9
경지면적(ha)	50,174	50,101	54,523	2.5%
〈畝〉	〈1,040〉	〈1,020〉	〈982〉	〈0.7%〉

* 식량작물 이외의 품목별 치부면적 자료가 濟州道와 농림수산부자료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對전국 비중의 계산은 농림수산부 자료를 적용, 계산하였음(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 1988).

자료 :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培가 확대되면서 경체된 상태임.

○ 1970년대에는 유채, 고구마, 감귤 등이 濟州農業成長의 先導作物이었으나 점차 양파, 양배추, 당근, 맥주맥 등의 겨울작물과 대두, 참깨 등의 夏作物로 代替되어 가고 있음. 越冬菜蔬類의 栽培擴大는 겨울철의 온화한 기온으로 육지에 비해 일찍 수확하여 출하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두, 참깨, 맥주맥은 政府收買에 따른 가격지지에

의한 것임.

○濟州地域 特化作物은 감귤, 유채,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참깨, 고구마, 두류, 잡곡류 등.

○제주지역내에서의 市・郡別 特化가 더욱 뚜렷함.

—감귤—서귀포시

—백주백, 고구마, 대두—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인접한 東西端지역

—마늘, 양배추, 양파—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서부해안 경작지역

라. 亞熱帶性 作物의 施設栽培와 花卉類 栽培

○大規模投資의 加溫施設에서 바나나 栽培가 1980年代 초에 본격 도입되어 급속도로 擴大되고 1987年 末에는 358ha에 달함. 費用이 過多한 國產 바나나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나 외국산 바나나의 수입 확대로 販賣價格이 하락함으로써 施設面積의 확대가 주춤한 상태임.

○金柑과 기타 감귤류의 하우스 栽培가 새로이 증대함.

○파인애플 栽培面積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花卉類의 施設栽培는 절화류, 분재류, 화분류, 관상수류, 구조류 등 골고루 재배하고 있으며 제주관광산업 발전, 國民所得 증대, 日本市場개척 등에 따라 展望이 좋음.

〈表 4〉 濟州地域 亞熱帶性 農作物 施設 栽培面積 變化 단위 : ha

	1981	1985	1987	비 고
바나나	0.45	58	358	加溫
金柑	—	16	111	無加溫
기타 일감류	—	—	12	加溫
파인애플	92	104	163	無加溫
화훼류 ¹⁾	27.7	98	178	一部加溫
합계	120	276	808	

註: 1) 화훼류는 노지재배면적 포함

資料: 濟州道

마. 家畜飼育

- 中山間地域의 광활한 草地資源의 利用으로 소 飼育이 조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지난 20년간 소 사육 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값싼 사료의 도입으로 사료집약적 생산이 조방적 생산에 비해 유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에 돼지사육두수와 양봉통수는 증가함.
- 젖소는 1987년말 현재 2,180두로서 제주지역의 우유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表 5〉 濟州의 主要家畜 飼育頭數의 變化

	1967	1977	1987	對전국사육두수 비중, 1987
韓・肉牛 (頭)	70,062	63,368	41,923	2.2(%)
돼지 (頭)	62,769	60,037	99,580	2.3
닭 (千首)	140.8	284.0	590.5	1.0
양봉 (통)	6,483	6,654	16,291	3.1

資料 : 제주통계연보(각년도) 및 농림수산 통계연보(1988)

3. 農產物 流通 現況 및 課題

가. 需給과 그 展望

- 濟州 상주인구 503천명(1987)과 관광객 1,758천명의 需要을 충족시킬 수 있는 農產物의 供給이 요청되며 상주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所得의 증대와 더불어 人口의 증가는 제주지역내 農產物 需要의 증대를 예견할 수 있으며 또한 良質의 食糧과 流通 서비스에 대한 需要의 증대가 기대됨.
- 糧穀中에 미곡과 소麥분의 搬入이 요구되며 쌀의 自給率은 8%에 불과

〈表 6〉 濟州 實播作物 需給實績, 1987

단위 : 톤

	미 목	백 류	소백분	두 류	서 류	기 타	합 계
생 산 량(A)	3,336	37,370	—	14,410	39,563	1,930	96,609
(반 입 량)	(38,566)	(—)	(5,475)	(—)	(—)	(—)	44,041
소 비 량(B)	42,169	9,000	5,308	2,493	9,555	1,060	69,584
식 량	42,017	6,222	4,758	1,317	6,112	915	61,341
기 타 ¹⁾	152	2,778	—	1,176	3,443	145	7,694
수매·가공·반출	—	28,300	550	9,900	35,600	670	75,020
자급률(B/A : %)	7.9	415.2	0.0	578.0	414.1	182.1	149.1

註 1) 종자, 사료, 감모 및 밀의 경우는 도내수요 가공용 포함.

2) 이월이입은 상쇄

資料 : 제주통계연보, 1988.

하다. 그러나 백류, 두류, 서류 등은 제주도내 수요를 충족하고 육지에 반출할 률량이 많음. 쌀의 搬入量은 계속해서 增大될 것이 예상됨.

쌀의 상주인구 기준으로 1인당 소비량은 84kg(1987)에 달하지 않아 전국 평균 126kg의 2/3수준이며 관광인구를 감안하면 더욱 낮은 수준임.

○ 果實類 중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등의 생산은 별로 없거나 소규모이며 대부분이 搬入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需要是 계속 증가되어 搬入도 계속 증대될 것이 예상됨.

○ 감귤은 輸入이 금지되어 있고 당분간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國內 全消費量은 제주지역의 生產에 의해 供給되고 있다. 감귤은 生果 販賣用 上品과 加工用 下品 및 城內消費로 구분되고 他地域 搬出은 總 生產量의 80% 이상임.

○ 加工用 감귤은 道, 農協 등 생산자 대표, 가공회사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協議會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산지단협과 가공회사간의 수매계약을 통해 계통수매하고 있음.

수매량과 외국산 오렌지 주스의 수입량이 연계되어 있고 제주산 감귤과 립주스의 수요가 크게 신장되어 加工用 需要가 증대하고 있음. 향후 전망은 외국산 오렌지의 수입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

〈表 7〉 濟州臺 감귤의 用度別 處理實績 단위 : 천톤(%)

年 度	생 과 반 출	가 공 용	기 타 소 비	합 카(총생산량)
1980	154.1(82.2)	23.8(12.7)	9.6(5.1)	187.5(100.0)
1981	205.9(83.1)	22.8 (9.2)	19.1(7.7)	247.8(100.0)
1982	264.6(81.8)	44.2(13.7)	14.6(4.5)	323.4(100.0)
1983	295.3(85.4)	33.1 (9.6)	17.5(5.0)	345.9(100.0)
1984	222.3(85.2)	23.8 (9.1)	14.9(5.7)	261.0(100.0)
1985	313.0(79.4)	65.7(16.7)	15.6(3.9)	394.3(100.0)
1986	278.8(83.7)	41.5(12.4)	12.8(3.9)	333.1(100.0)
1987	372.6(86.2)	78.3(16.9)	13.5(3.1)	464.4(100.0)

資料 :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양다래, 바나나, 파인애플, 金柑 등의 아열대 과일에 대한 국내수요를 제주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입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 이나, 앞으로 큰 需要의 增大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草蔬類는 대부분이 濟州地域內에서 自給을 하고 越冬草蔬는 생산의 절 대우위에 의해 타지역으로 搬出되고 있음. 앞으로도 월동채소의 반출량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表 8〉 濟州地域 生產量 比重, 1987

品 目	比 重(%)	品 目	比 重(%)
당 균	47.6	양 파	6.6
양 배 추	43.1	파	4.9
딸 기	13.9	인 구	1.2
마 늘	9.3		

- 特用作物로서는 유채, 참깨, 콩 등이 유망품목이며 搬出品目중의 하나임.
- 畜產物 중 쇠고기는 道內消費와 道外搬出에 있어서 전국추세와 비슷하여 크게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의반출 비중은 7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돼지고기는 道內自給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搬出하고 있으며 需要量

〈表 9〉 濟州農 소, 駐지의 供給實績

單位 : 頭(%)

年 度	소			돼 지		
	도 축	반 출	계	도 축	반 출	계
1980	5,472(29.2)	13,254	18,726	35,082(100.0)	—	35,082
1981	3,263(21.7)	12,044	15,307	28,535(100.0)	—	28,535
1982	2,327(17.3)	11,119	13,446	41,673(100.0)	—	41,673
1983	2,175(21.8)	7,784	9,957	54,259(100.0)	—	54,259
1984	2,684(38.1)	7,043	9,727	69,100(100.0)	—	69,100
1985	5,007(40.0)	7,517	12,524	69,602 (95.4)	3,351	69,602
1986	7,624(40.0)	11,447	19,071	78,552 (93.5)	5,441	78,552
1987	6,859(28.6)	17,128	23,987	97,182 (95.9)	4,205	97,182

註: ()내는 총처분두수에 대한 도내 도축두수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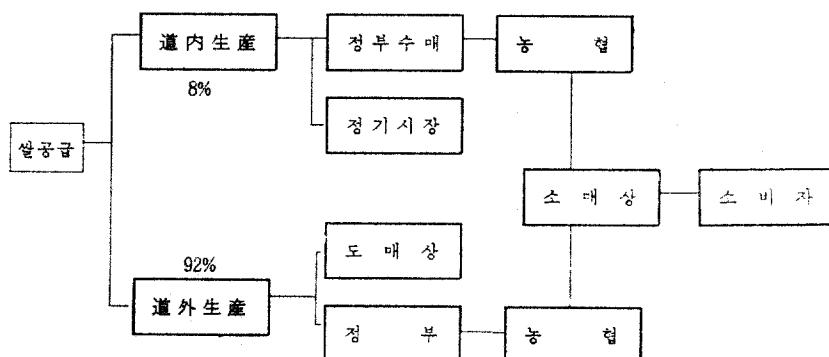
資料：濟州道 畜政課

도 급속히 증대하고 있음.

- 우유는 1987년에 道內消費量의 71%의 11,300㎘을 반입
- 제주지역의 꿀생산량은 약 1,300드럼(1987)으로 추정되며 이중 200드럼은 양봉업자에 의해 반출되고 1,000드럼 정도는 관광객 상대로 판매

나. 流通實態와 課題

○ 糧穀의 流通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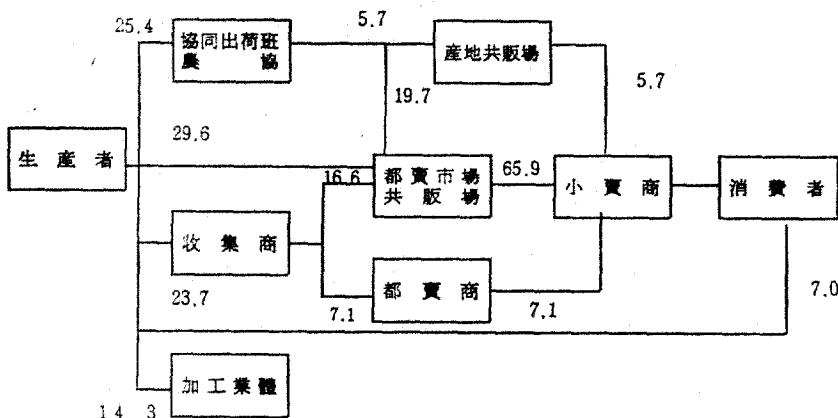
— 정부수매는 생산량의 39%(1987)에 달함.

— 쌀도매상의 점유율이 높음

○ 쌀의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반입 불가능한 악천후를 감안하여 비축물량의 확보가 요청됨. 정부관리 양곡 보관 창고의 보관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982 : 26,338→1987 : 13,427톤) 이는 민간의 보관 반입 가능의 증대를 의미함.

전국 쌀 수급의 여유를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비상시 비축물량의 확보가 요청됨.

○ 감귤의 流通經路, 1982



— 유통마진율은 38.9% (도매 단계 18.7%, 소매 단계 24.8%)

— 감귤協同出荷班 326개소 (1987)에 10,340명 가입

— 團田賣買시 수확이 상인들에 의해 수행되므로 과수 결과지의 손실이 많아 다음해 수확에 지장초래

— 기계식 選果場施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草蔬類의 流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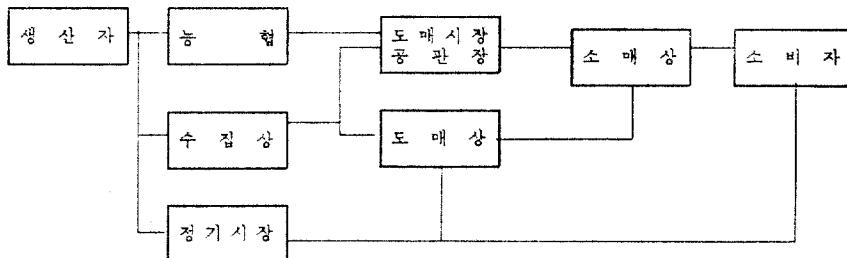
— 流通經路

— 農協의 유통비중이 미미함. 共同出荷班은 226개소로 조직됨.

— 유통마진율은 40~60%에 달함.

— 團田賣买的 비중이 높음

— 육지반출은 컨테이너에 의한 일괄 수송체계가 도입되고 있음.



〈表 10〉 濟州島 畜牧 및 주요 채소류의 농협계통 출하실적

품 목	1985		1986		1987	
	총생산량 (천t)	농협처리율 (%)	총생산량 (천t)	농협처리율 (%)	총생산량 (천t)	농협처리율 (%)
감 글 ¹⁾	318.1	25	279.3	22	372.6	26
양 파	14.2	24	14.3	28	20.2	33
양 배 추	11.8	8	16.6	6	26.3	11
마 늘	10.2	5	18.8	6	24.4	8
당 근	14.4	2	16.9	6	25.3	7
가을 감자	5.9	23	11.3	21	10.3	14

註: 1) 감글의 총생산량은 가공용과 자가소비를 제외한 상품용 총 출하량임.

資料: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제주시내 유통을 위해 유사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畜產物 流通

—收集商이나 精肉業者가 農家에서 生畜을 구입하여 屠畜하고 정육점에 배분하는 것이 道內流通經路의 주축임.

—搬出量은 收集商에 의해 生畜으로 수송되고 육지 도매시장에서 도축 거래됨. 따라서 生畜의 수송에 따른 費用의 과다.

—一家畜市場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육계처리장 1개소(처리능력 24,000수/일)

—우유처리장(능력 20%/일) 및 치즈가공 공장(처리능력 5%/일)이 1개 소씩 있음.

4.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濟州農業

- 貿易收支改善으로 적자국인 미국으로부터의 農產物 輸入自由化的 壓力이 加重됨.
- 세계 농산물 貿易秩序를 정립하고자 하는 GATT 회원국의 多者間 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진전으로 農產物 輸入規制와 補助金을 철폐해야 하며 신규도입이 어려워짐.
- 우리나라가 國際收支變化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오던 근거가 된 GATT의 18조 B 항을 출업함으로써 수입제한 農產物의 輸入自由化를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행하도록 합의함.
- 북방정책에 의한 공산권 경제와 후발개도국의 수입압력이加重됨으로써 热帶農產物의 輸入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임.
- 果實類의 시장개방은 198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생산기반이 없거나 輸入으로 인하여 國內產과일의 代替效果가 크지 않아 국내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乾燥熱帶과일 등에 국한하였음.

〈表 11-1〉 주요 과실류 및 과실가공품의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

年度	主 要 品 目
1981	포도(건조), 살구(건조), 프룬(건조), 사과(건조), 감(건조), 감귤류겸질
1983	코코넛, 보라질년, 캐수넛(신선, 건조), 살구(신선), 자두(신선), 냉동파
	실 및 냉동견과류(나무딸기, 겹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커린트, 구즈베리) 등
1984	무화파(신선, 건조), 해몬파 라임(신선, 건조) 등
1985	그레이프후르츠(신선, 건조), 베찌(신선) 등
1987	감(신선), 그레이프후르츠 큐스, 해몬큐스, 크린베레큐스 등
1988	에버파도우(신선, 건조), 마르멜로(신선), 과실칵테일 등

- 1992년 이후 과실류의 수입개방이 될 경우 오렌지, 파인애플, 감귤류, 파파야, 망고 등 热帶과일의 輸入이 增大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輸入農產物의 국내가격은 별로 조치가 없는 한 국제가격 수준

〈表 11-2〉 파실 및 파실가공품의 수입자유화 예시 목록

年 度	果 實 類	果 實 加 工 品	品目 數計
1989	대추야자, 망고, 망고스틴, 파아비, 나무딸기, 커런트와 구즈베리, 파파야, 초본류딸기, 슬로크린베레, 피스타치오(11개 품목)	파실혼합쥬스, 딸기통조림, 초본류딸기(일시저장), 기타과실쥬스(복숭아딸기제외), 쟈과 젤리류(균질화한 조제품, 감귤류의 쟈과 젤리 및 마말레이드, 기타과실의 쟈과 젤리 및 마말레이드, 과실쥬스와 페이스트)(9개 품목)	20
1990	페찬, 키위프루트(2개 품목)	딸기쥬스, 기타혼합쥬스, 베찌(일시저장처리,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라임쥬스, 파인애플(설탕조제,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파인애플쥬스), 토마토쥬스, 기타일시저장파실(10개 품목)	12
1991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호두(탈각, 탈각안한것) 해즐넛 또는 필버트(탈각한것, 탈각안한것)(7개 품목)	복숭아(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1개 품목)	8
품목수계	20	20	40
유보품목	오렌지, 신선포도,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냉동파실과 냉동견과류(감귤, 포도), 단감, 감귤류의 퓨레와 페이스트, 오렌지쥬스(농축냉동, 미농축냉동, 농축미냉동, 기타), 감귤, 감귤류(기타 방법으로 조제처리), 사과쥬스, 포도쥬스, 라임쥬스, 사과주, 배술, 기타 열대과일 등		

까지 下落할 것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과실류를 생산하는 제주 지역 농민의 생산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5. 流通改善 및 輸入自由化 對策方向

○쌀, 우유 및 그 제품 등 소수의 品目을 제외하고 濟州地域에 생산된 農

產物은 陸地의 市場에 유통시켜 놓은 가격을 받아야 농의소득원이 부족한 濟州農民으로서는 所得向上의 길이 열리며, 貿易自由化에 따른 손실과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濟州農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他地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不利한 農產物 輸送與件을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상쇄 할 수 있을 때 제주농업의 競爭力を 얻을 수 있을 것임.

—越冬作物의 早期出荷가 가능하게 生產技術을 개발

—早期出荷가 가능하게 각종 유통정보체계의 확립

—大規模生產과 輸送에 따른 비용의 절감

○青果物은 生產者團體인 農協組織을 통한 공동출하와 出荷의 調節로 農家受取價格의 적정화를 기하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非能率을 해소함.

—協同作目班에 의한 과실류와 채소류의 공동출하

—규격화와 선별화에 의한 出荷物品의 상품성 제고

—유통정보의 확충으로 적기 출하 유도

—北濟州郡 涙月邑 과지 協同出荷班의 成功事例

(허길행의, 菜蔬類 農家出荷體系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

출하반이 소재한 과지리는 濟州市로부터 西方 약 32km의 해안에 위치한 논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田作農業地帶이다. 주위에는 과지해수욕장이 유명하며, 약 400호의 農家가 234ha의 밭과 약간의 과수를 耕作한다. 부락내의 주산물은 양파, 양배추, 마늘 등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農產物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農業先進地의 하나로서 指導者들에 의해 일부 農產物의 對日輸出이 시도되기도 하고 있다. 부락내에는 과지出荷班을 포함하여 7개 出荷班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체계적으로 共同出荷를 하는 것이 본 과지出荷班이다. 이 出荷班이 設立된 것은 1982년으로 지역내 農業指導者の 한 명인 신직수 (66歲)씨에 의해 農民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設立 당시 會員은 20명이었으나 현재는 1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회원의 가입과 脫退는 자유이나 會員이 會의 설립취지를 위반할 때에는 總會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는 강

력한 會員制로 운영하고 있다. 이 出荷班의 出荷方法 共同出荷는 물론 共同計算까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며, 共同計算方法은 收穫期前 자체선발된 審查員들이 회원의 경지를 순회하면서 等級을 결정한 후 等級과 面積에 따라 회원간의 分配比率을 결정하며, 會員出荷의 總販賣額中 각종 費用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分配比率에 따라 회원간에 분배하는 극히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收穫作業도 共同으로 하며 정산시에 회원간 投入勞動의 차를 人件費로서 고려한다.

1986년 전체 取扱量은 93.7%으로 28,576천원을 받아 收穫費用을 포함한 각종 出荷費用을 제외한 차액 19,666천원을 會員에게 정산하였으며, 1987년에는 80.7%을 13,785천원에 판매하여 각종 費用을 제외한 후 7,216천원을 정산하였다(표 12). 會員은 가입시 3만원의 入會費를 내며, 생산 전량을 공동출하할 것을 약속한다. 출하는 전량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내 單協이 계약해 놓은 고정거래처에 출하하며, 양파의 수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專門輸送業體를 통함으로써 차량과 船舶간의 商品移積에 따른 費用을 축소시키고 있다. 等級은 3등급으로 하여 9kg 단위 망을 이용 包裝하며, 컨테이너에는 약 350망이 적재되는데 컨테이너당 12만원(kg당 38원)이 소요되고 있다. 單協은 協同出荷班이 1,000만원을 출하선도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돈은 出荷作業費의 假支給金 代金精算時까지의 會員資金需要에 충당되고 있다. 이

〈表 12〉 평지 양파出荷班 事業實績

	販賣額	販賣手數料	運送費	下車費	從事員人件費	作業員人件費
1986	28,575,860 (304.83)	2,064,972 (22.03)	4,159,200 (44.37)	265,775 (2.84)	145,000 (1.55)	1,688,500 (18.01)
1987	13,785,150 (170.79)	961,926 (11.92)	3,092,260 (38.31)	235,950 (2.92)	137,640 (1.71)	1,669,500 (20.68)
	耕耘機代	網代	間食代	雜費	經費合計費	差引
1986	80,000 (0.85)	437,950 (4.67)	59,100 (0.63)	8,950 (0.10)	8,909,447 (95.04)	19,666,413 (209.79)
1987	—	364,000 (4.51)	65,700 (0.81)	41,900 (0.52)	6,568,876 (81.39)	7,216,274 (89.41)

* ()내는 kg당 收支내역임.

出荷班의 특성은 회원의 규모는 매우 적지만 共同出荷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공적 공동출하의 사례는 많으나 共同計算의 成功事例는 드물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共同出荷組織이 성공하게 된 주요 要因으로서는 첫째, 회생적이고 덕망있는 우수한 지도자가 존재하는 점, 둘째, 지리적으로 소비자와 멀리 떨어진 島嶼이기 때문에 輸送費가 많이 들며, 상대적으로 共同出荷의 유리성이 큰 점, 셋째, 양파의 주산지로서 栽培規模가 큰 편이며 農業先進化로 비교적 상업영농이 발전되고 농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점, 넷째, 공동출하의 확대를 위한 단협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觀光產業으로서 現地販賣體系의 강화가 요청됨. 계속해서 증대하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각종 관광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農產物의 現地販賣를 강화할 수 있는 시설과 요원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숙박시설의 제공

—식음료판매시설과 관광음식점 운영

—휴식시설의 확보

—농산물 판매시설과 저장 보관시설의 확보

—관광요원으로서 농장경영

○輸入自由化에 따른 热帶과일의 輸入을 되도록 연기하되 輸入이 되는 경우 국내가격을 당분간 높게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탄력관세의 운영과 國內生產支援을 위한 부가금 징수

—衛生検査와 檢疫의 강화

—品種改良, 生產技術의 개발

○제주지역내 消費를 위한 流通施設의 확보와 加工產業의 육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보호

—채소류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의 조기건설 운영

—청과물 가공공장의 육성으로 원료조달과 輸送費 節減의 유리성을 이용

—축산물을 도축하여 지육이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 市場出荷할 수 있는 시설의 건설

—花卉類 출하조직의 강화

參 考 文 獻

成培永：農水產商品市場分析，KREI 연구총서 16, 1985.

濟州道：濟州統計年報, 1967~1988.

許吉行外：菜蔬類 農家出荷體系에 관한 研究：一 양파를 중심으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60, 1987.

玄公南：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濟州地域農業事例,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74, 1988.